e-행복한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Vol. 51 / 2017. 04

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누아씨(NUAC)가 간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통일준비

당신이 통일주인공

서른아홉에 탈북해
8급 공무원 된 이청송 씨

통일돋보기

통일 한국 인구 7,579만
세계 21위

앱 설치하기

지난호 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 신청

구독 해지

웹진개선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0-856)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T. 02-2250-2300

정부3.0 지난호보기

불확실성의 한반도 정세, 통일 공공외교로 헤쳐 나가야

차 두 현(경기도 외교정책특별보좌관)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드배치 中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 속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1880년, 조선 왕조의 예조(오늘날의 외교부에 해당)참의이자 제2차 수신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김홍집은 청(淸)의 일본주재공사관 소속 한 외교관으로부터 조언을 듣는다.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親중국) 일본과 결속하며(結일본), 미국과 연대하여(聯미국) 자강을 도모하라." 오늘날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이라 불리는 해법이었다.

물론, 이 책략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 했고 조선은 결국 열강의 경쟁적 유린을 겪은 후 제국주의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다. 당시 조선의 국력이 워낙 쇠잔한 탓도 있었지만, 조선지도자들의 인식이나 황준헌의 식견 모두 열강의 자국 이기주의와 제국주의적 야심을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 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은 물론 구한말과는 많이 다르다. 주변국들에 의한 노골적인 병탄이 추구되었던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요, 우리가 당면한 난국의 속성도 국가의 물리적 존망까지를 우려해야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국가이기주의가 지니는 잠재적 위험성은 오히려 더 살벌해지면 살벌해졌지 결코 덜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홍집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깐깐한 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동맹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임을 거듭 암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들의 위신과 이익이 걸린 일에는 언제라도 안색을 바꿀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자신의 길만을 강변하는 이중성을 보이면서 말이다. 역사 왜곡과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을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일본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름의 지분과 발언권을 은근히 강조하는 러시아 역시 만만치 않다.

> *한국이 꿈꾸는 **평화공존과 통일의 비전**은 무엇이고,*
> *이것이 왜 지역 안정과 **세계 공동의 평화 · 번영에** 긴요하며,*
> *한국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 세계의 이익에도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
>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설파해 나가야 한다.*

분단의 현실은 이러한 주변국들의 국가이기주의에 우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다. 우리의 물리적 생존에 대한 위협은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내부, 즉 북한으로부터 가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시대착오적인 '수령' 독재 그리고 호전적 대남전략은 한반도 안보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하여 주변국들의 전략적 경쟁은 한반도 밖의 문제에까지 우리를 연루(連累)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경쟁과 연대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구도 속에서 북한의 군사위협까지 증대되면서,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전략적 융통성과 선택지 역시 심각하게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남북한 모두가 주변국에 대한 레버리지는 점점 상실되는 반면 주변국들의 분단 활용 카드는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는 분단의 영속화와 한국의 성장동력의 약화, 그리고 한반도 안보 불안의 고질화이다. 평화적 남북공존과 통일은 그만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 추진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롯데면세점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미래 환경이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력과 세계적 지명도가 과거 구한말 시대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대한민국은 물리적인 면에서도 G-20의 일원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류'(韓流)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를 매혹시킬 소프트파워의 현재적 · 잠재적 능력도 누구 못지않게 풍부하다. 외부 여건의 격변에 전전긍긍하며 몸을 사릴 만큼 나약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제 세계 여론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꿈꾸는 평화공존과 통일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것이 왜 지역의 안정과 세계 공동의 평화 · 번영에 긴요하며, 한국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 주요 국가들과 세계의 이익에도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통해 설파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정부 차원의 외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구촌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공외교를 통해 더욱 활기차게 확산되어야 한다.

>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해 나도 일정부분 변하는*
> ***'공감'의 소프트파워를 기르고 활용함**으로써*
> *많은 이들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한반도流'**의*
> *열성팬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넘어선 가치가 함께 가미되어야 한다. 즉, 자칫 한반도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통일'이라는 키워드에 더하여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국가들을 침략함으로써 이익을 취하지 않은 평화의 역사가, 물리적 충돌을 통하지 않고도 교섭과 협상을 통해 오히려 영토를 확장한 서희 외교의 DNA가 유산으로 남겨져 있다.

이를 다른 국가들에게 설명해 나가는 소프트파워 역시 기존 강국들의 은근한 강압이나 일방적 설득과는 격이 달라져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도 일정부분 변하는 '공감'의 소프트파워를 기르고 활용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한반도流'의 열성팬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얻어낸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응원을 바탕으로 이제 완고하게 핵이라는 위험한 무기에만 집착하려고 하는 평양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지도층들에게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길이 얼마나 스스로를 위험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일인가를 자각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면 설사 북한의 지도자들이 미망(迷妄)을 벗어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민들은 서서히 각성하게 되며, 이를 통해 또 다른 변화가 도래할 수 있다. 군사력을 비롯한 우리의 물리적 대비태세를 조기에 강화하는 일은 물론 안보와 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보다 중 ·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 공공외교 · 평화 공공외교 역시 그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이다.

미국이 포착한 북한 6차 핵실험 준비 정황

〈사진자료: 연합뉴스〉

북한 어디로 가나?

- 최근 북한의 행태와 전망 -

고영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평양서 김정은 신년사 이행중인 군중대회

올해 북한이 이상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필자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정은이 지난 1월에 한 신년사 중 자아비판 내용이었다. 그는 육성 신년사에서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며 머리를 숙였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은 무오류의 '신'과 같은 존재이다. 김일성이 고위 간부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일을 잘못했다'는 식의 자아비판을 한 적은 있었지만 김일성, 김정일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발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물론 김정은이 의도했던 바는 주민들을 감동시켜 민심을 얻어 보자는 것이었겠지만 속으로는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자책'을 요구하며 거꾸로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정풍운동', '숙청'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던 것 같다.

실제 그로부터 보름이 채 안 되어 북한체제 수호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국가보위성에 대한 당 조직지도부(체제 유지의 또 다른 기둥)의 1차 검열(감찰)이 끝났다. 검열 결과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김정은의 '사냥개' 역할을 충실히 해온 김원홍 보위상이 해임되어 연금되었고 7명의 보위성 부상 중 5명이 4신 고사기관총으로 처형되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보위성에 대한 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13일 온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쿠알라룸푸르발 소식을 접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은보다 이른바 '백두혈통'에 더 가까운 김정일의 맏아들이 김정은이 보낸 사신(死者)들에 의해 말레이사아에서 VX독가스로 암살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며 전 세계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2 김정은 암살로 인한 독극물 제거 작업

>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잔인한 처형과 숙청을 하지 않으면 간부들과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북한정치와 사회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故 김정남

북한은 지난 2월 12일에는 평북도 방현 비행장에서 신형 중거리 고체연료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3월 6일에는 동해상으로 스커드 ER형 미사일 4발을 동시에 쏘아 올렸다. 김정은의 천방지축 대내외 행태에 온 한반도가 흔들리고 있다. 김정은은 왜 이토록 괴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북한의 속셈은 무엇일까?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잔인한 처형과 숙청을 하지 않으면 간부들과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북한 정치와 사회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핵과 각종 미사일들을 소유하고 있으니 체제와 지도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에 보내고 싶어 하는 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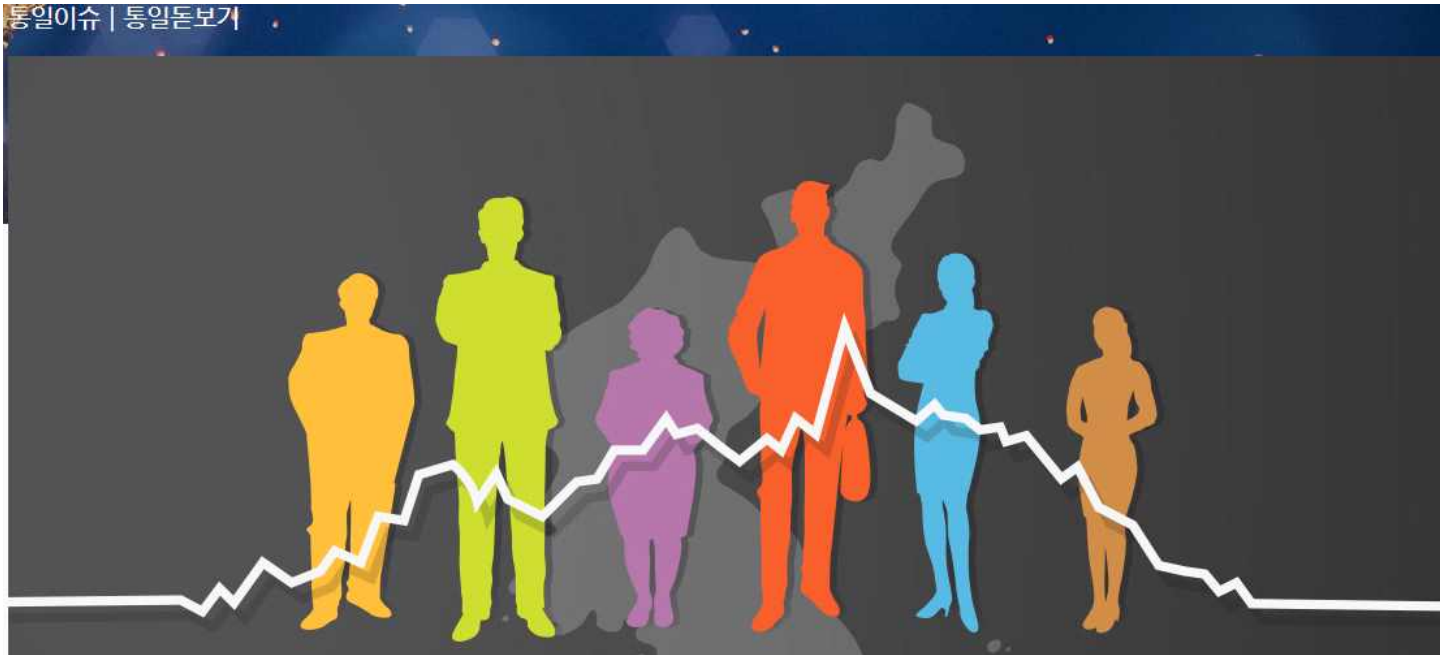
조부(祖父)와 부친(父親)으로부터 물려받은 피폐한 나라, 3대 세습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광적인 집착 때문이다. 최룡해(당 선임 부위원장), 황병서(군총정치국장), 조연준(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영철(정찰총국장), 조경철(군 보위사령관) 같은 호위무사들이 언젠가 김원홍이나 장성택처럼 자신을 배반할 수 있다는 불안감, 미국과 특히 중국이 김정은 대(代)체제를 노릴 수 있다는 압박감, 경제는 발전시키고 싶은데 그럴 경우 세습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이 김정은을 핵과 미사일 폭주에 매달리게 하는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 *힘들더라도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문제에서 국민 전체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는 엘리트들에게는 공포정치, 주민들에게는 이른바 '애민정치'를 내세우면서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려 들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핵 강화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기초 위에서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 등을 통해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金父子의 오랜 '꿈'을 실현하려 들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깔고 힘들더라도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문제에서 한국 국민 전체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가 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진자료: 연합뉴스〉



통일 한국 인구 7,579만 세계 21위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 인구는 2천477만9천 명, 남한 인구는 5천101만5천명이라고 합니다.
통일 한국은 7천579만 인구가 되는 셈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순위는 세계 28위이지만,
통일이 되면 프랑스(6천600만여 명), 영국(6천500만여 명), 이탈리아(6천200만 여명)보다 인구가 많은
세계 2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인데요.
남북한의 시도별 인구 및 미래세대 인구수 비교를 통해 '통일 한국의 미래'를 전망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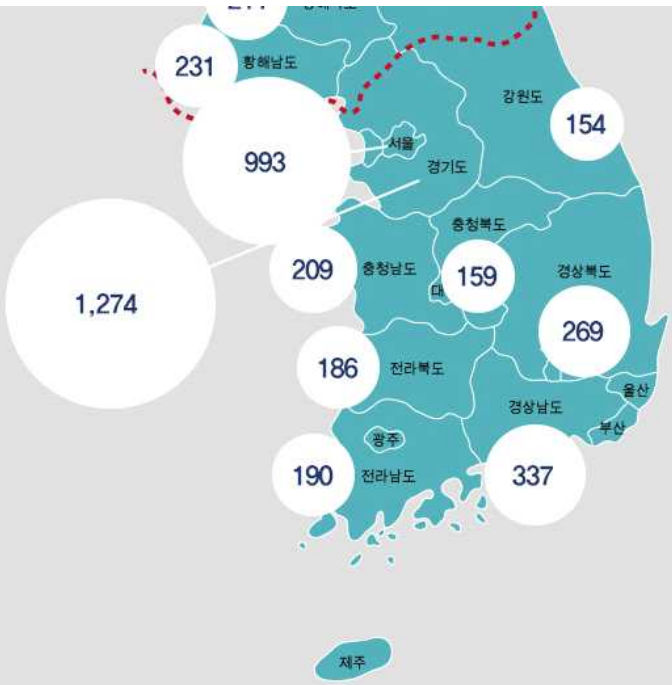
북한 인구, 남한의 경기도 · 서울 합한 인구와 비슷

(단위: 만 명)

※ 북한 인구센서스(2008년 기준)
통계청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평양시의
인구는 287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08년 기준

북한 총인구
2,335만



2017년 기준

남한 총인구 5,171만

2008년 기준
4,954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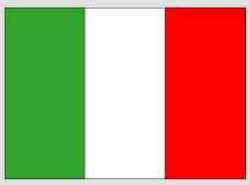
※남한 통계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남한 인구 5,101만 + **북한 인구 2,477만**

통일 한국 7,579만 (세계 21위)

프랑스 6,683만 (세계 22위)

영국 6,443만 (세계 2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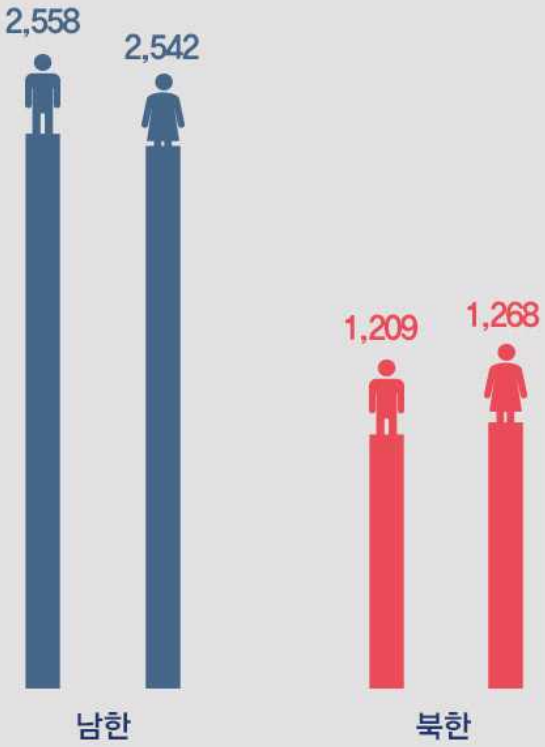


이탈리아 6,200만 (세계 24위)

※자료 : 2015년 기준,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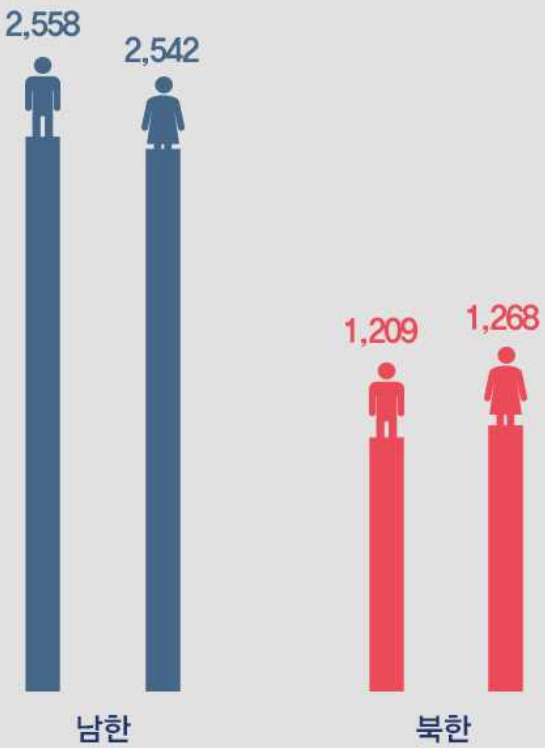
남한, 남고여저(男高女低) 북한, 남저여고(南低女高)
통일 후 남녀인구 균형 효과

(단위: 만 명 / 2015년 기준)



남한, 남고여저(男高女低) 북한, 남저여고(南低女高)
통일 후 남녀인구 균형 효과

(단위: 만 명 / 2015년 기준)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 남한 2015년, 북한 2008년 기준

남한은 아파트, 북한은 연립주택이 주류

(단위: 만 가구)

※ 남한 2015년, 북한 2008년 기준

〈자료 : 2016 북한의 주요통계자료, 통계청〉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 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클리핑한 코너입니다.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美, 中 기업과 개인 등 추가 제재 北 생필무역도(종합)

미국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법'을 위한 개인과 기업 등 총 30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美 F-35B 스텔스기 6~8대 한국서 첫 정밀폭격 훈련(종합2보)

미군이 일본에 배치한 최신예 F-35B 스텔스 전투기 6~8대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정밀 폭격훈련을 한 후 복귀했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中 외교부, 대북 석유공급 중단포함 美제재안에 "반대한다"

미국 의회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까지 포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내놓자 중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美의회 "中,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 즉각 중단하라" 초당적 결의안 발의

미국 공화당 소속 테드 요효(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이 23일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 안을 공식 발표했다.

+더보기

조선일보

IAEA, “北 우라늄 시설 최근 두 배로 규모 늘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은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 보도했다.

+더보기

세계일보

“中, 북한군 가상의 적으로 정식 규정”

21일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중국군이 최근 내부적으로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명단에 정식 포함하고 군사배치를 대대적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더보기

서울신문

국방부 “北 신형 로켓엔진 성능, 의미 있는 진전”

국방부는 20일 북한의 신형 고출력 미사일엔진 시험과 관련 “엔진 성능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더보기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 “사드반대 불변 北문제엔 6자회담이 효과적”(종합)

중국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1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보기

dongA.com

틸러슨 “韓日 핵무장 허용할수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장관이 “북핵은 임박한 위협인 만큼 북핵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보기

한국일보

한국 쏙 빼놓고 ‘비핵화·평화협정’ 빅딜 카드 만지는 美中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틀로 ‘중·미·북 3자 회담’을 공개 주장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주고받는 ‘빅딜’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보기

서울신문

'北 올 외화 수입 20% 감소할 것'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외화 수입이 2014년과 비교해 20%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북한의 대외 수출은 8억여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보기

중앙일보

아베 "납북자 해결 위해 김정은과 회담 용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더보기

경향신문

러 군사전문가 "한국, 러시아의 '잠재적 적국' 될 것"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부각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대응도 심상치 않다.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미·러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말레이, 北 '불법 외화벌이' 겨냥 北근로자 140명 체포(종합)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혐의로 무더기로 검거됐다. 김정은 암살 사건으로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불법 근로 이주에 대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中보복 한식당·항공업계로 확산 롯데마트 99곳중 절반 문닫아(종합)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 여파로 피해를 보는 대상이 롯데에서 한국 음식점과 항공업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보기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사드, 이르면 4월 국내 실전운용 발사대 2기 도착(종합)

국방부는 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 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더보기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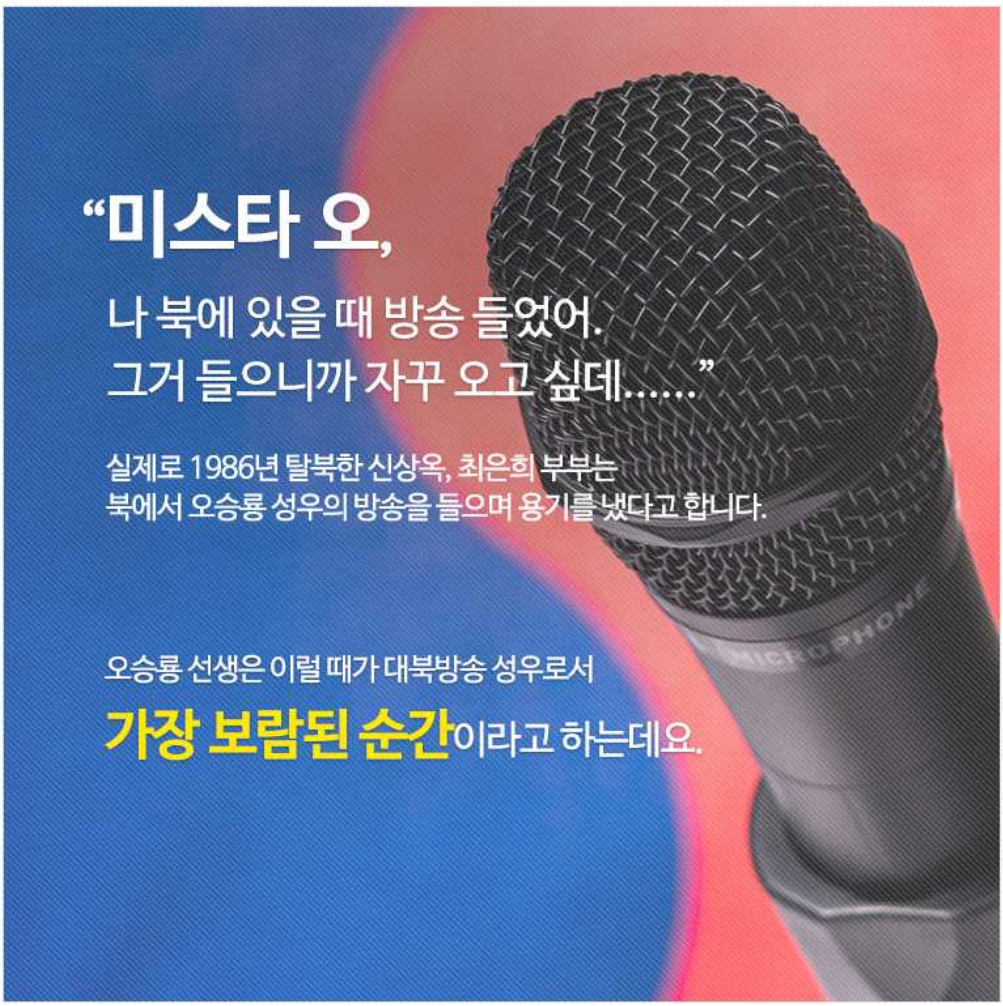
대북방송의 산 증인 성우 오승룡
“통일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오승룡선생은
1954년 KBS 1기 공채 성우로 데뷔해
우리나라 90년 라디오 역사의 63년을
함께해온 원로 성우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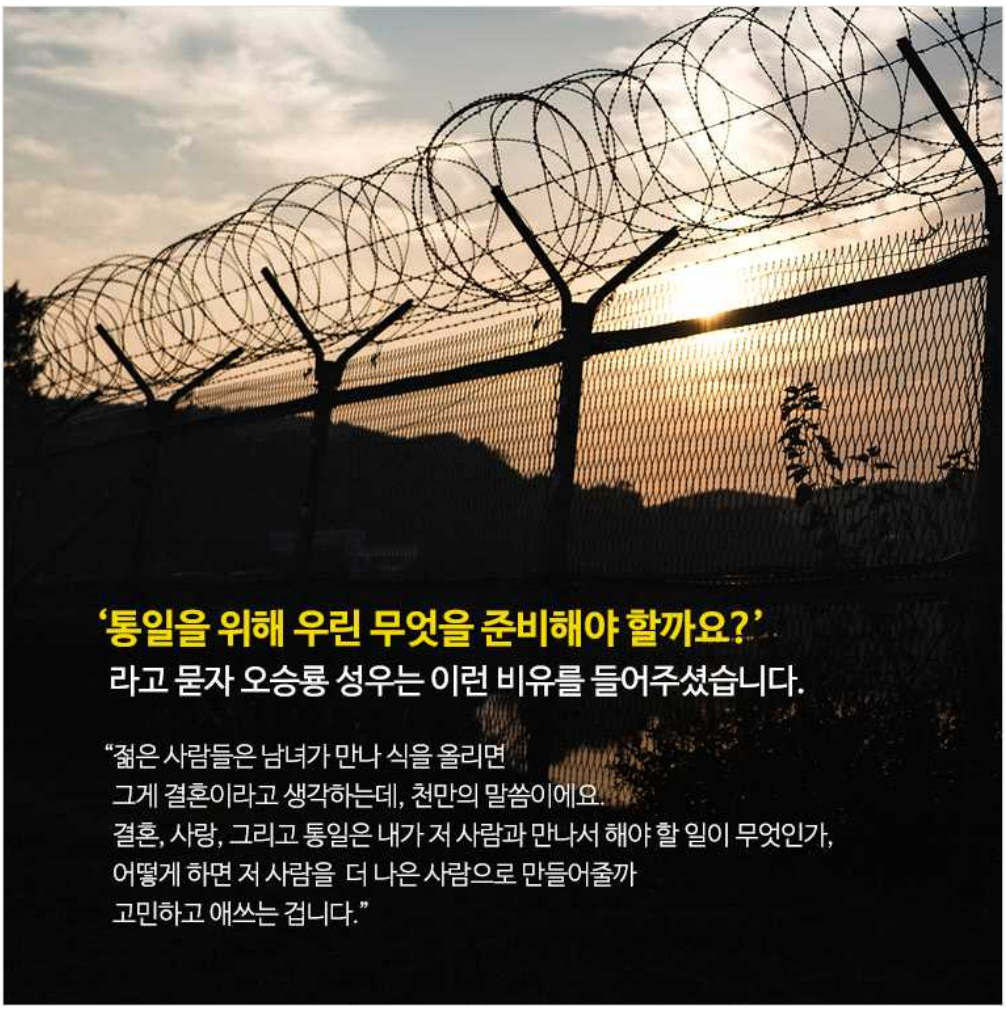
어린 시절 버스나 택시 안에서 들었던
'서울이야기', '길따라 노래따라' 등의 교통방송을 비롯해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 '청실홍실', '오발탄'
그리고 '희망의 소리', '대인민군방송' 등
북한을 향한 대북방송의 산 역사를 써오신 분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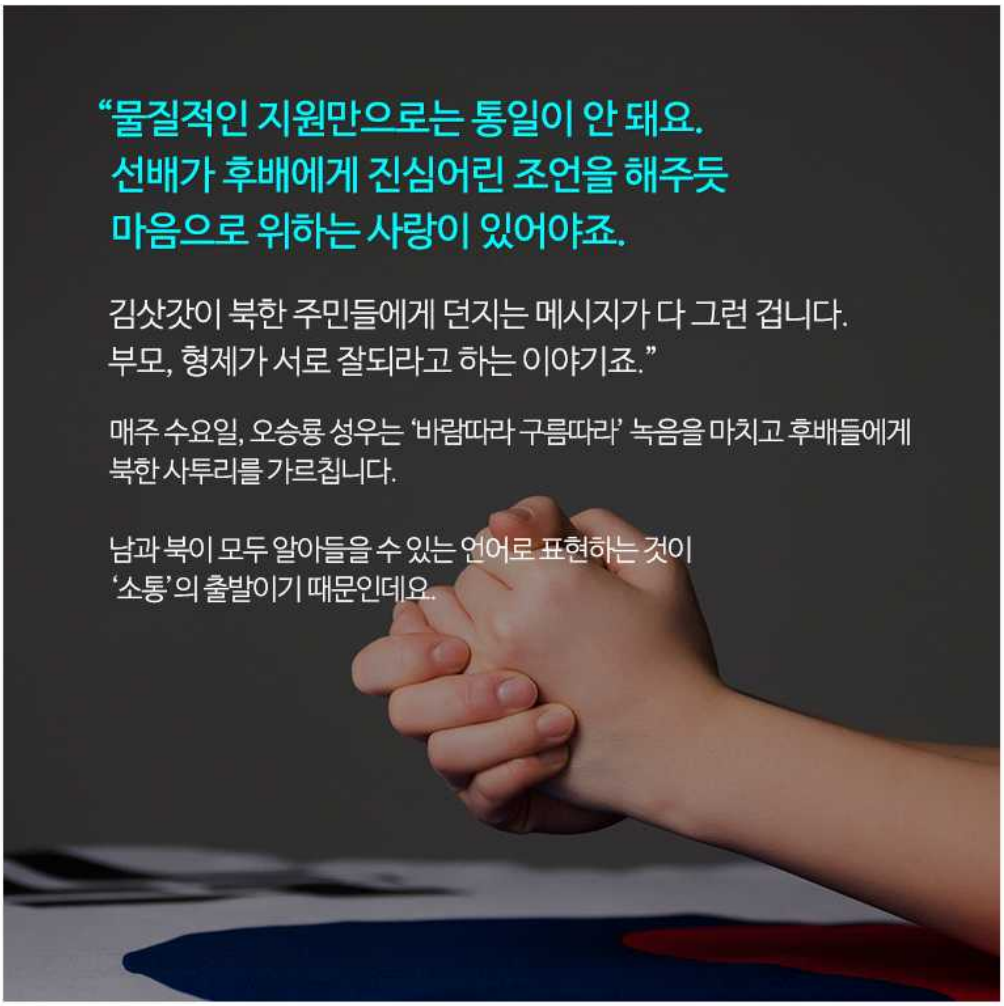
106.1MHz
지금도 새벽 1시에는
KBS 한민족방송에서 오승룡 성우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바람따라 구름따라'가 그것인데요.
'바람따라 구름따라'는 북한 체제의 모순을 고발하는 라디오극으로
1964년 '김삿갓 북한방랑기'로 시작한 방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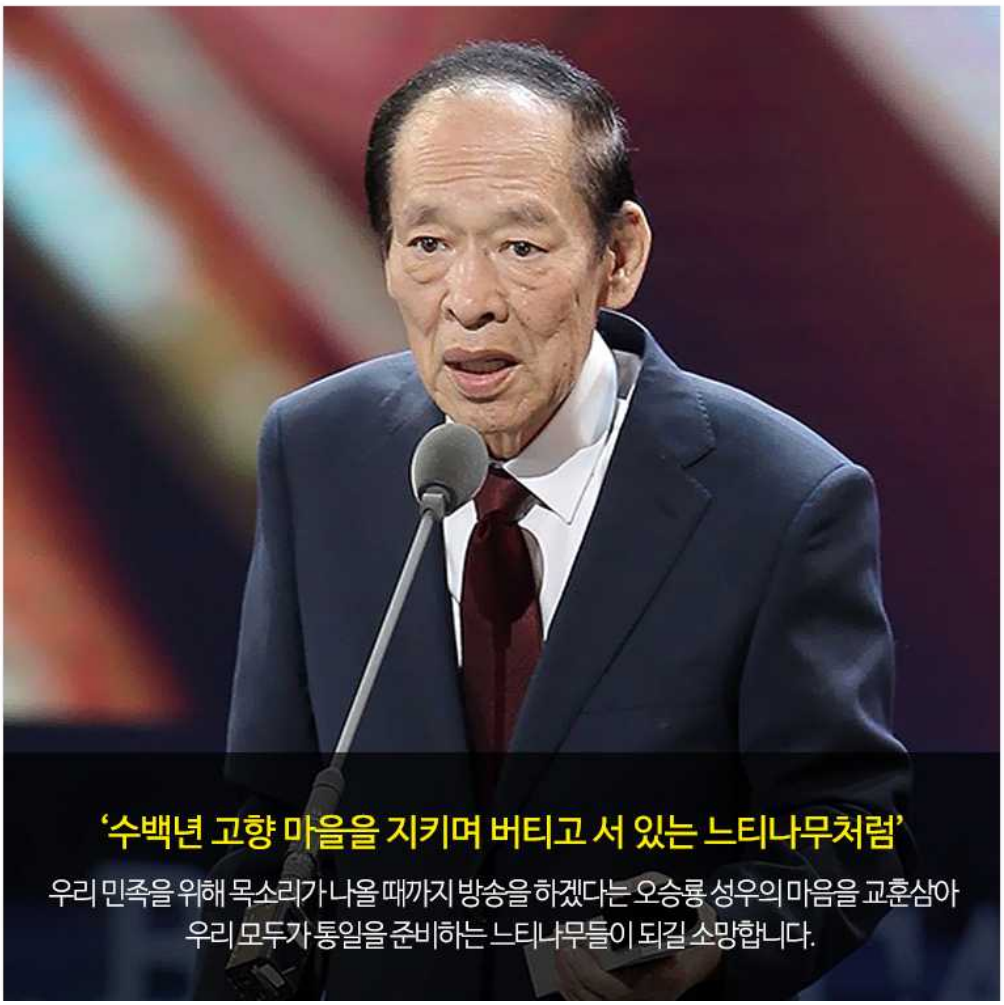
예전에는 김삿갓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과 만나
북한 실상을 이야기 하고
해결책도 찾았다면
지금은 아들, 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 체제와 대비되는 다른 나라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김삿갓이 한두 마디로 조언을 해줍니다.


“미스타 오,
나 북에 있을 때 방송 들었어.
그거 들으니까 자꾸 오고 싶데……”
실제로 1986년 탈북한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북에서 오승룡 성우의 방송을 들으며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오승룡 선생은 이럴 때가 대북방송 성우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오승룡 성우가 생각하는 대북방송은
남과 북의 '이해'와 '소통'을
이끌어가는 이음새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남북의 '타협점'과 '교류의 통로'를 찾는
설득하고 깨우쳐주는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을 위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묻자 오승룡 성우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남녀가 만나 식을 올리면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혼, 사랑, 그리고 통일은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고민하고 애쓰는 겁니다."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는 통일이 안 돼요.
선배가 후배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듯
마음으로 위하는 사랑이 있어야죠.
김삿갓이 북한 주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다 그런 겁니다.
부모, 형제가 서로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죠.”
매주 수요일, 오승룡 성우는 ‘바람따라 구름따라’ 녹음을 마치고 후배들에게
북한 사투리를 가르칩니다.
남과 북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소통’의 출발이기 때문인데요.


‘수백년 고향 마을을 지키며 버티고 서 있는 느티나무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하겠다는 오승룡 성우의 마음을 교훈삼아
우리 모두가 통일을 준비하는 느티나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통일준비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문을 활짝 열다!

“하루빨리 통일해 주변국 눈치 안 보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통일이 아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통일을 찾아야 할 때 아닐까요?”

연초록빛 새싹이 돋아난 이른 봄날, 민주평통 9개 지역협의회가 전국 곳곳에서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는 그간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심화·발전시킨 과정으로, 경기 안산시협의회가 7년째 이어오고 있는 ‘통일대학’을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이다. 누아씨(NUAC)는 통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강의와 수강생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진 현장 경기 안산시협의회, 서울 서초구협의회·양천구협의회를 다녀왔다.

645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경기 안산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13회 강좌를 열다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2010년 통일대학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봄, 가을 통일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누구나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통일이 왜 꼭 필요한 것인지 시민들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도록 기획했던 아카데미가 벌써 13기를 맞았다. 지난 3월 9일 열린 개강식에는 신규 수강생들과 지난 기수 선배들, 경기 안산시협의회 유오복 협의회장과 김기백 수석부회장, 김점준 통일정책 자문국장, 제종길 안산시장, 한국외대 안제노 교수 등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총 13주간 이루어지는 아카데미는 ▲통일에 관한 기본 이해 ▲북한 사회의 실상 ▲통일정책 ▲통일 과제 등 크게 4가지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11주에 걸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듣고 매시간 질의와 토론을 통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며, 과정을 모두 수료하면 안산시의 정식 '통일 리더'가 된다. 전 기수 수강생들은 현재 '탈북민과 함께 하는 골든벨'을 비롯해 매주 목요일 안산 지역 탈북민 가정 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반찬나눔 봉사, 지역환경정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강연을 듣고 있는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수강생들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제노 교수

경기 안산시협의회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단체사진

이날 개회사를 전한 유오복 안산시협의회장은 "우리 협의회의 통일아카데미가 7년째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안산 시민들의 나라 사랑과 통일 염원 덕분"이라며 "수강생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리엔테이션을 맡은 한국외대 안제노 교수는 삼성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여주며 1년에 남북 갈등으로 소비되는 비용이 298조, 통일이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6천조라는 설명과 함께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통일 과제를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 통일 리더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는 작년까지 645명의 통일 리더를 양성했으며, 오는 가을학기가 지나면 800명에 가까운 통일 리더들이 배출될 예정이다.

설렘 가득한 출발,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서울 서초구협의회와 양천구협의회

지난 3월 13일에는 서울 양천구협의회 (회장 임경하)가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의 문을 활짝 열었다. 개강식에는 42명의 수강생들과 임경하 양천구협의회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전희수 양천구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특강을 진행했다. 민주평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 통일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 권태오 사무처장은 "서울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대에 불과하다"며 "우리사회의 남남갈등을 해결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북핵문제나 북한 인권문제 등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협의회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수강생들

이날 개회사에서 양천구협의회 임경하 회장은 "매주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지식과 견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1기 수강생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양천 지역 각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교수, 언론인, 전문직, 주부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기 수강생들은 9명씩 조를 이뤄 총 5분임을 구성했다. 이들은 짧은 교제 시간을 통해 다 같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아름다운 통일을 준비하자고 다짐했다.

서울 양천구협의회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단체사진

서울 서초구협의회(회장 하만장)도 3월 8일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개강식을 열었다. 총 100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발된 50명의 수강생 중에는 의학, 법조, 교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 서초구협의회 아카데미는 총 8주간 10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90% 이상 참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질 예정이다. 하만장 서초구협의회장은 "모든 수강생들이 통일의 거목으로 성장해 각 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는 개회사와 함께 제1기 수강생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외교관으로 일했던 재북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며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상처는 물론 전 세계인들이 불안에서 해방되는 '힐링'과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협의회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단체사진

하만장 회장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는 올해 서울 중구협의회, 서초구협의회, 양천구협의회와, 경기 안산협의회, 용인시협의회, 인천 계양구협의회, 충남 천안시협의회, 강원 속초시협의회, 대구지역협의회 등 총 9개 협의회에서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매주 강의를 듣고 분임별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주어진 과제물(총 1회)을 제출하고 90% 이상의 출석률을 인정받을 경우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수강생 미니 인터뷰

"통일을 제대로 알고 싶어 참여했어요!"

김자경(경기 안산시협의회)

예전에는 '통일이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7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막연한 통일이 아닌, 우리가 준비해야할 구체적인 통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모두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명분(경기 안산시협의회)

주변에 탈북민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여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배우게 될 통일 교육을 통해 좋은 통일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승(서울 서초구협의회)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매년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생겨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일터와 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통일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장경아(서울 서초구협의회)

여성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탈북민들의 사연을 듣다보면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강좌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들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임만혁(서울 양천구협의회)

묘목준공식을 위해 평양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 주민들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통일에 대해 자세히 배우려고 합니다.

박예린(서울 양천구협의회)

2007년에 입국한 탈북민입니다. 현재 안보교육과 통일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진정한 '먼저 온 통일'이 되어보겠습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는 법

강동완(부산하나센터장, 동아대 교수)

"남한 드라마를 보고 탈북했어요!" 최근 탈북민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남한 방송이나 영화를 어떻게 접할 수 있는 걸까?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알판(DVD)'으로 남한 영상물 시청하는 북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방법은 대략 두 가지 방법이다. 첫째는 TV를 통해 남한 방송을 직접 시청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DVD 및 노트텔(중국산 EVD플레이어)등 저장매체를 통해 시청하는 형태다. 주로 남한과 가까운 접경지역과 동해안 근처 일부 지역에서는 남한 방송이 직접 수신된다.

남한 영상물이 북한에서 확산 되는 배경에는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재생장치, 즉 북한에서 '녹화기'라 불리는 영상매체의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남한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내륙지역은 북한에서 '알판'이라 불리는 DVD를 통해 영상을 시청한다.

북한에 남한 영상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무렵에는 CD, DVD 등을 재생할 수 있는 영상재생매체가 주로 유통되었다.

북한에서 '노트텔'로 불리는 중국산 EVD플레이어

단속 피할 때는 노트북과 비슷한 '노트텔' 사용

중국에서 복제된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 DVD

이후 중국산 EVD플레이어가 유통되면서 한류가 확산되었다. 북한에서 일명 '노트텔'로 불리는데, 노트북과 동일한 크기로 액정화면이 10인치부터 15.1인치까지 다양하다. 모양은 노트북과 비슷하지만 TV 전파가 수신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노트텔이라고 한다.

충전하면 4시간가량 영상시청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녹화기(비디오재생장치)처럼 별도로 텔레비전을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시청방식이 집에서 녹화기와 텔레비전을 연결해야하는 공간상의 제약이 있었다면 노트텔은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는데 용이하다.

남한에서 종영된 드라마, 일주일 후 판매

한편, 중국에서 복제된 한국 영화나 드라마 DVD(알판)는 한화 1,000원 정도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남한에서 드라마가 종영되면 약 일주일 후 곧바로 복제되어 거래되는 식이다. 20부작 드라마도 DVD 두 장 정도에 담을 수 있다. 노트텔의 확산은 DVD(알판)보다 USB의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 태블릿PC를 이용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국산 태블릿PC는 한화 9만 원 정도면 최소 사양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노트텔이 북중 연선 지역을 거쳐 북한의 내륙 지역으로까지 확대돼 사용된다면, 태블릿PC는 연선지역의 밀수업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블릿PC는 노트텔과 비교할 때 더욱 소형화된 제품이라는 것과 단순히 영상시청에 그치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마이크로 SD카드 단자가 있어 USB보다 더욱 경량화, 소형화된 파일저장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남한 영상매체의 확산

이처럼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남한 영상물 시청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녹화기와 텔레비전을 연결하여 DVD(알판)로 주로 시청하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 노트텔, MP5(엠피오), 태블릿PC, 이동전화(손전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 내륙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와 단속을 피해 다양한 방식으로 남한 영상물을 시청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디지털 매체의 유통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자료: 연합뉴스〉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 노력은 자기 몫”

서른아홉에 탈북해 8급 공무원 된 **이청송** 씨

봄기운이 완연한 오후, 공무원 이청송 씨(44세)는 경기도에 있는 한 생태공원 안에 위치한 캠핑장을 점검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는 탈북 2년 만에 남한 사람들도 어렵다는 대한민국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올해로 공직생활 3년차에 접어든 8급 공무원이다. 6년 전 한국 땅을 밟은 후 “그토록 해보고 싶었던 공부를 원 없이 하고 있다”는 그는 지금까지 딴 자격증만 9개, 내년에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다. 탈북민 이청송 씨의 칠전팔기 ‘공무원 합격 스토리’를 들어봤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 시작한 ‘남한 공부’

드넓은 초지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생태공원 입구에서 전기차를 타고 10여 분 즈음 들어가면 시민들을 위해 마련해둔 캠핑장이 나타난다. 이청송 씨가 근무하고 있는 갯골캠핑장이다. 그는 작년까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다 올 초 진급과 함께 이곳 생태공원으로 발령이 났다. 2014년 기술직 9급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은 후 3년만의 진급이니 제법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원 수료 후 바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오십 세든 육십 세든 누구나 배우고 공부하잖아요. 우선 사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전기 기술이었어요.”

청송 씨는 ‘전기시스템어과’를 선택했고, 아예 기숙사에 들어가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다. 한국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더 빨리 정착할 거란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웃지 못 할 일들도 많았다. 커피를 마시려고 “고뿌 하나만 주십쇼” 했는데 ‘고뿌(‘컵’의 일본말, 북한의 일상용어)’라는 말에 어린 친구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청송 씨가 느끼는 문화적 충격도 적지 않았다. 주로 농경지뿐인 북한과 달리 남한은 가는 곳마다 화려한 고층 건물이 세워져 있고, 긴 생머리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자들을 거리에서 마주칠 때도 무척 낯선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학 공부'가 가져다 준 기회 '9급 공무원'

개발원 졸업 후에는 삼성, LG 등의 협력 업체에 취직을 했다. 학과 담당이셨던 주남규 교수와 대학 학장의 추천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열심히 노력하는 청송 씨가 하루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덕분에 청송 씨는 1년 동안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며 그간 배워온 기술들을 활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일이 좀 익숙해지면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청송 씨는 하나센터 임영수 선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선생이 알려준 대로 교육청을 찾아가 인터뷰 과정을 마쳤다. 이후 청송 씨는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환경조경원예학과'에 입학했고,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실습 과정을 거쳐 졸업을 했다.

대학 공부를 하다 보니 지원해보고 싶은 채용공고들이 눈에 띄었다. 한 번은 인천 환경공단에서 정규직 채용공고가 올라와 지원을 했는데 서류와 시험은 통과했지만 면접에서는 떨어지고 말았다. 면접 탈락을 연거푸 세 번이나 겪은 후에는 괜한 욕심인가 싶어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는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탈북민 출신의 기술직 9급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소식이었다. 얼른 지원서를 낸 청송 씨는 서류, 시험, 면접을 모두 통과했고 2014년 7월 공단 9급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았다.

"처음엔 출근하기가 두려웠어요. 혹시나 제 말투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거든요. 근데 기숙사생활을 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고 마음을 다시 먹었죠. 동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배우면서 어울리니까 1년 뒤에는 편안해지더라고요."

9개의 자격증을 가진 '이청송 사이버 학습왕'

청송 씨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배움의 자세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머리를 숙이고 배우다보면 한두 해만 지나도 일이 익숙해져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 역시 첫 발령지에서 영어를 잘 몰라 영어 단어 밑에 한글로 발음을 써놓고 외우다시피 했다. 기계실에는 유독 많은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온', '오프' 같은 작동 버튼까지도 사진을 찍어두고 틈틈이 익혀나갔다.

퇴근 후에는 틈틈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땄다. 이렇게 청송 씨가 취득한 자격증만 9개, 2015년에는 환경교통사업본부 그린에너지팀에서 '사이버 학습왕 표창장'을 받았고, 작년에는 '상반기 마일리지 우수직원 표창장'을 받았다. 대형면허, 지게차운전자격, 택시운전자격, 화물운송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전기관리사 등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은 물론 자원봉사, 헌혈까지도 뭐든 열심히 한 덕분이었다.

'2016년 상반기 마일리지 우수직원 표창' 수상한 이청송 씨

인천 하나센터 사진공모전 참가

얼마 전에는 하나원에서 '선배 멘토'로 초청을 받아 특강을 했다. 이날 청송 씨는 딱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열심히 공부할 것', '둘째 배울 때는 자존심을 버릴 것'이다. 청송 씨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생활신조 같은 것이었다. '0'에서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는 탈북민이 대학도 나오고 좋은 스펙을 가진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려면 뭐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고향에 기술학교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청송 씨와 함께 캠핑장을 둘러봤다. 시민들이 지금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이곳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가꿔나갈 것인지 설명하는 그의 표정에서 강한 책임감과 자신감이 묻어났다. “1년 뒤 다시 오면 캠핑장이 확 바뀌어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질문에 “능력 닿는 데까진 열심히 하겠다”며 활짝 웃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살며시 보여줬다.

“지금은 발령 초기라 할 일이 많은데, 조금 안정이 되면 대학원을 가려고 해요. 전기시스템제어 기술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요. 전문가가 되면 더 많은 기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웃음).”

청송 씨는 통일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 기술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다.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받았던 배움의 기회를 되돌려주고 싶어서다. 그간 청송 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선생님들처럼 청송 씨도 고향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통일한국 행복이네

20XX년 남북한이 하나 된 가상의 대한민국,
다복한 행복이네 가족 3대의 일상을 통해 통일한국의 희망찬 이야기를 미리 만나봅니다.

우리 아빠 어깨가 당당해졌어요.

글.권혜리/그림.이택종

아~맞다! 우리 처남도 관광가이드를 하는데, 요즘 다시 해외관광객들이 늘어서 한동안 주춤했던 관광업계도 호황이라고 하더라.
어! 나도 그 뉴스 봤어. 통일 한국이 일본,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관광국가 1위가 됐다고 하던데.

어제는 우리 막내딸이 슬그머니오더니 요즘 아빠 어깨가 당당해 보인다고 귀띔하더라고~.
나도 그래. 전에는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더니, 요즘은 가장 노릇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지금처럼
이게 다~ 통일이 돼서 그런 것 아니겠냐!

그렇지!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도 좋은 데, 먹고 살기까지 좋아졌으니 요즘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 싶다!
짱
지금처럼

지금 나에게 건네는 안부
'전남 순천'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때론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다. 견딜 만 하다고 고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슬프지 않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할 만하니까 버티는 일보다 해야 하니까 이 악물고 버티는 일이 더 많다.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수많은 명제 대부분은 양팔저울에 올려 판단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나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한다. 어쩌면 긴 오수(午睡) 한 번에 사라질 짧은 계절이니, 고백해 본다. 지금 나는 썩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 진짜 '괜찮아'지면 될 터이니. 봄이 녹아 꽃으로 피어난, 순천으로 향한 것은 진짜 '괜찮아'지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세상의 모든 꽃들에게, '선암사'

언젠가 남도 여행길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으면 곧장 '선암사'로 향하리라 다짐했었다.
정호승 시인의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라는 시구 탓이리라. 사찰에서는 '근심을 푸는 곳'이란 의미를 담아, '화장실'을 '해우소'라 칭한다. 하다못해 '화장실'마저 기차타고 가볼 만한 곳이라니 우는 일에 박해진지 오래라 눈물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지만, 무작정 선암사로 걸음을 옮겨본다.

근엄한 얼굴의 천년사찰이라 해도 봄이 반갑기는 매한가지. 사찰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숲길 곳곳에는 성실한 봄의 흔적이 여지없이 남겨져있다. 그리고 제법 수다스럽게 재잘대는 물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우리나라 돌다리 중 아름답기로 첫 손에 꼽힌다는 승선교를 만날 수 있다. 이음새 하나 없이 커다란 돌들을 맞물려, 쌓아올린 돌다리는 조계산 맑은 선암천과 어울려 감탄사를 자아낸다.

선암사 정문

선암사의 유명한 돌다리

선암사의 아름다운 건축양식

그리고도 다시 한참을 걷다보면 선암사의 자랑 중 하나인 800년 된 야생차밭으로 지나 일주문에 당도할 수 있다. 겹겹이 쌓인 단청의 모양새부터 예사롭지 않은 일주문을 지나자 비로소 천오백 년 세월을 품고 있다는 경내에 들어선다. 조계산 자락을 타고 흘러내린 봄 햇살이 고여, 꽃으로 피어난다는 사찰은 긴 세월로 인해 빛바랜 단청에도 불구하고 화사한 얼굴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 얼굴 중에는 매화란 이름의 고운 꽃망울도 끼어있다.

원통전과 종정원 돌담을 따라 피어난 50여 그루의 매화나무는 특별히 '선암매'라 불린다. 수령이 350~650년 정도 된다는 '선암매'는 사실 일반적인 매화에 비해 꽃송이는 잘은 편이지만, 고아한 향만은 지친 여행객도 오래 머물기를 주저 하지 않게 한다. 특히, 고려시대 대각국사가 처음 심었다고 전해지는 무우전 인근의 600년 수령의 매화나무 '무우전매(無優殿梅)'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선암사의 자랑이다.

선암사 사찰 내부

매화꽃

자연이 선사하는 서정 '순천만습지'

단아한 자태의 매화 향에 취했었다면 이번에는 바람을 맞으러 떠날 차례. 순천의 바람은 순천만에서 만날 수 있다. 늦가을 은빛으로 반짝이는 갈대도 유명하지만, 봄부터 여름까지 초록빛으로 일렁이는 풍광 역시 장관이다.

'순천만습지'는 세계에서도 드문 온전한 연안습지로 다양한 동식물의 쉼터가 돼주고 있다. 박제되지 않고, 살아 숨 쉬는 자연은 계절의 변화 속 매번 색다른 풍경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특히, 해질 무렵 풍광은 전국에서 한 손에 꼽힐 정도니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용산전망대에 올라 온통 붉게 번져가는 일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길 권한다. 혹시 오래 전 일몰을 보았다 해도 다시 오르길 권한다. 어제의 일몰은 오늘의 그것과는 같지 않기에.

봄의 순천만 풍경

스스로에게 묻는 안부, '낙안읍성'

사실 남도 특유의 서정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순천은 유독 해질 무렵 찾아가면 운치 있는 관광지가 많다. 정겨운 초가지붕 위로 쉼 없이 바람이 지나가는 낙안읍성 역시 그 중 한 곳이다. 1.4km 석성 안에는 280여 동의 초가집과 객사, 관아, 물레방앗간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기도 하다.

야트막한 돌담 너머 매화며, 개나리, 벚꽃 등 봄꽃이 한가득 피어오르고 저녁 무렵이면 아궁이에 익어가는 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마을 안을 감돈다. 성곽에 올라, 낮 동안 잘 말려진 오후의 긴 햇살이 찬찬히 마을을 감싸는 풍경을 바라보자 낙안읍성의 속 깊은 해우소와 높은 전망대에서 끝내 흘리지 못했던 물기어린 짠맛이 느껴진다.

'다 그렇게 살아'라는 주위의 핀잔과 위로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스스로에게 묻지 못했던 안부를 이제야 묻는다. 그리고 혹여 지금 썩 괜찮지 않다면, 다짐해 본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해 괜찮아지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봄의 낙안읍성 풍경

정겨운 손맛으로 차려낸 푸짐한 한 끼, '남도 한정식'과 '꼬막정식'

남도 손맛이야 말하면 입 아플 정도. 특히 순천은 풍요로운 해산물과 농산물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남도의 푸근한 정을 만날 수 있는 남도한정식 한 상에서는 간장게장과 짭짤한 젓갈에 제철 육지와 바다에서 나는 온갖 싱싱한 먹거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나온다. 혹여 일행이 적어 한정식 한 상이 부담이라면, 꼬막정식을 추천한다. 꼬막 원산지로 유명한 벌교와 인접해 있어 순천만 인근에서는 한상 가득 싱싱한 꼬막정식도 맛 볼 수 있다.

꼬막정식

남도 한정식

〈글: 권혜리 / 사진: 기자희·김규성 / 사진제공: 순천시청〉

개성을 대표하는 고기구이,
설야멱적(雪夜覓炙)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누비던 고구려인들은 기후와 지역 특성상 고열량의 고기 요리를 즐겨먹었다고 한다.
맥적(貊炙)이란 말도 '북방 맥족(고구려인)의 고기요리'란 뜻에서 유래했다.
이후 맥적은 고려 말엽 개경(지금의 개성) 지방에서 '설야멱적(雪夜覓炙)'으로 되살아난다.
하지만 지금의 고기처럼 부드럽게 개량된 육질은 아니었을 것.
질긴 고기조차 야들야들한 식감으로 되살아나는 설야멱적을 만들어보자.

요리재료

소고기 등심살 400g, 다진 마늘 2작은 술, 다진 파 2작은 술, 다진 생강 2작은 술, 후추 약간
양념장 재료 : 참기름 3큰술, 간장 1큰술

Step 1

등심살은 넓고 길게 저며
두께 0.3cm 정도로 잘라준다.

Step 2

자른 고기를 칼등으로 두드려 잔금을 내준다.

Step 3

고기를 꼬치에 꿰어 기름장을 바른다.

Step 4

숯에 불을 피워 준비한다.

Step 5

고기를 구울 때 조금 익힌 뒤 냉수에 담가
식히는 과정을 3회 정도 반복해준다.

Step 6

이후 기름장, 파, 마늘, 생강 다진 것과 후추를 발라
마지막으로 구워주면 완성.

요리연구가_박민지

캠핑장에서 즐기는 설야멱적

'눈 오는 밤 화로에 석쇠를 얹어 쇠고기를 구운 후 찬물에 담가 지방을 빼서 다시 구워 먹는다'는 뜻이 담긴 설야멱적. 전등조차 없던 옛날, 찬물과 뜨거운 불을 오가며 정성껏 고기를 구워내는 것은 긴 겨울밤을 보내는 즐거움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요리를 꼭 겨울에만 즐기라는 법은 없다. '숯불로 고기 구워먹기'는 캠핑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중 하나.

최근 도심 밖으로 나가 산과 들 가까운 곳에서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이 많은데, 남들 누구나 똑같이 먹는 삼겹살 대신 이 설야멱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하는 소고기에 비하면 턱없이 질긴 고기였을 텐데, 이처럼 독특한 조리법을 통해 부드러운 고기 요리로 재탄생시킨 옛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보자.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평통 통일활동 소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2017년 중남미 통일강연회' 3회 개최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시티 등에서 각각 열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유호열, 사무처장 권태오)는 3월 6일부터 13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북핵폐기와 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동포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17년 중남미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을 맡은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통일 당위성과 국제사회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 장마당을 통해 드러난 북한사회의 모순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한반도 정세와 북한 실상에 대해 동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3월 6일 상파울루에서 열린 첫 번째 통일강연회는 브라질협의회(회장 박대근) 자문위원들을 비롯해 홍영종 상파울루 총영사, 김요진 브라질 한인회장, 브라질 변호사협회 및 봉헤찌로 브라질 군 사령부 관계자, 지역 교민, 사회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두 번째 통일강연회에는 남미서부협의회(회장 이학락) 자문위원들과 추종연 아르헨티나 대사, 이병환 아르헨티나 한인회장, 지역 교민과 사회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마지막 강연회는 중미카리브협의회(회장 오병문) 주최로 3월 13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렸으며, 전비호 멕시코 대사, 멕시코 한글학교 교직원, 지역교민 및 주요 사회 단체인사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장 유용하다"고 강조하며 "중남미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와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평통 '2017년 제1~3차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
교육, 문화·체육 직능 대표 400여 명 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대전에서 3차례에 걸쳐 '2017년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직능별 정책회의는 교육, 문화·체육 등 2개 분야에 직능별 자문위원 400여 명이 함께 했다. 1차 회의에서는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강동완 동아대 교수의 '통일 토크 콘서트'가, 2차 회의에서는 권태오 사무처장의 '통일정책 현주소와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마지막 3차 회의에서는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의 통일특강이 각각 진행됐다. 또한 강연 후에는 '청년층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교육 직능)'과 '문화체육 분야 활용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문화·체육 직능)'을 주제로 직능별 전문 자문위원들의 분임토의가 각각 이어졌으며, 이튿날 6개분임의 토의 결과를 종합,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권태오 사무처장은 2일차 기조강연을 통해 "불안한 동북아 정세와 미 트럼프 정부의 북핵 강경 기조 등을 고려해 북핵 위기에 대한 올바른 안보 의식을 갖고 현재 위기를 헤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및 포럼, 좌담회

아카데미 시상식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서울 중구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경기 용인시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대구지역회의)

서울 중구협의회(회장 양우진)는 3월 6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과 2부 권태오 사무처장의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5월 8일까지 총 10주간 북한 및 국제 정세, 북한의 핵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분단과 통일, 한류를 통한 통일이야기, 통일비전과 국론통합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3월 15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 개강식을 열었다. 총 40명의 수강생들이 함께 하는 아카데미는 오는 5월 24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되며, 이날은 차두현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의 '북한의 국사와 국방'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다.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3월 20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60여 명의 수강생과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1부는 오리엔테이션, 2부는 권태오 사무처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10주간 통일준비와 통일공감 확산,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의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북한의 핵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남북분단과 통일문제, 동북아 정세와 통일환경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인천 계양구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충남 천안시협의회)

▼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충북 청주시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대전에서 3차례에 걸쳐 '2017년 직능별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직능별 정책회의는 교육, 문화·체육 등 2개 분야에 직능별 자문위원 400여 명이 함께 했다. 1차 회의에서는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강동완 동아대 교수의 '통일 토크 콘서트'가, 2차 회의에서는 권태오 사무처장의 '통일정책 현주소와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마지막 3차 회의에서는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의 통일특강이 각각 진행됐다. 또한 강연 후에는 '청년층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교육 직능)'과 '문화체육 분야 활용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문화·체육 직능)'을 주제로 직능별 전문 자문위원들의 분임토의가 각각 이어졌으며, 이튿날 6개분임의 토의 결과를 종합,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권태오 사무처장은 2일차 기조강연을 통해 "불안한 동북아 정세와 미 트럼프 정부의 북핵 강경 기조 등을 고려해 북핵 위기에 대한 올바른 안보 의식을 갖고 현재 위기를 헤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및 포럼, 좌담회

아카데미 시상식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서울 중구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경기 용인시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대구지역회의)

서울 중구협의회(회장 양우진)는 3월 6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과 2부 권태오 사무처장의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5월 8일까지 총 10주간 북한 및 국제 정세, 북한의 핵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분단과 통일, 한류를 통한 통일이야기, 통일비전과 국론통합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3월 15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 개강식을 열었다. 총 40명의 수강생들이 함께 하는 아카데미는 오는 5월 24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되며, 이날은 차두현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의 '북한의 국사와 국방'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다.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3월 20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60여 명의 수강생과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1부는 오리엔테이션, 2부는 권태오 사무처장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10주간 통일준비와 통일공감 확산,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의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북한의 핵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남북분단과 통일문제, 동북아 정세와 통일환경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인천 계양구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충남 천안시협의회)

▼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충북 청주시협의회)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최재현)는 3월 16일 지역대표 인사와 자문위원, 구청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날 개강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과, 2부 한국외대 안제노 교수의 '통일비전과 국론통합'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5월 25일까지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 평화통일 기반 구축, 통일 공감대 확산 등을 주제로 한 강의 및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는 지난 3월 14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과 2부 '통일비전과 국론통합'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총 10주간 통일정책, 북한실상, 국제정세, 국가안보, 통일공감 등 5개 주제의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4주에 걸쳐 '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아카데미는 200여 명의 자문위원과 수강생들이 함께했으며 '북한을 잘 알면 그것이 곧 통일의 지름길이다', '국제정세 변화와 통일외교전략' 강연과, '한반도정세변화, 북한실상,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제로 한 분임별 토의, '경기도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역 안보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서울 서초구협의회**(회장 하만장)는 3월 8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고,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은 3월 9일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지도자 아카데미'를 열었으며,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는 3월 13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자세한 행사 소식은 '누아씨(NUAC)가 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교실

▲ 통일시대 시민교실(충남 아산시협의회)

▲ 제2기 홍천 통일대학(충남 홍성군협의회)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김세영)는 3월 21일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해 '북한의 이해, 통일의 이해'와 '통일비전과 국론통합'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는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노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기 홍천 통일대학'을 열어 '북한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북한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강연을 진행했다.

포럼

▲ 경기 평화통일 리더스 포럼(경기지역회의)

▼ 제32차 충북 평화통일 포럼(충북지역회의)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박해진)는 3월 8일 경기 31개 시·군 협의회장 및 포럼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경기 평화통일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고,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는 13일 '제32차 충북 평화통일 포럼'을 열어 '동북아정세의 불확실성과 한반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참석자 전원이 자유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담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남 장성군협의회)

▲ 수성구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대구 수성구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울산 남구협의회)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3월 7일 '수성구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개최해 '통일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가졌고, 같은 날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는 '2017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어 '신냉전체재하의 한반도 통일정책' 강연을 들은 후 합동 토론 시간을 가졌다.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안숙자)는 13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어 '통일문제 및 북한 실상 이해'라는 좌담회를 가졌고, **전북 군산시협의회**(회장 황진)는 22일 '통일 좌담회'를 개최해 '우리의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 통일 좌담회(전북 군산시협의회)

자문위원 연수

▲ 제주지역 자문위원 연수(제주지역회의)

▲ 전남지역(동부권) 자문위원 연수(전남 광양시협의회)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는 3월 18일 '2017 제주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고, **전남 광양시협의회**(회장 정용관)는 15일 전남지역 11개 시·군협의회 자문위원 23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전남지역(동부권)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기타회의

▲ 1/4분기 운영위원회(경북지역회의)

▼ 제17기 부산 여성위원회 업무회의(부산지역회의)

경북지역회의(부의장 한삼화)는 3월 3일 3월 3일 '2017년 1/4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18기 자문위원 구성과 자문위원 연수 및 통일사업에 관한 세부 계획을 공유했고,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 여성위원장 신정주)는 8일 '제17기 부산 여성위원회 업무회의'를 통해 '통일맘수기공모전'과 관련해 집중 토의 시간을 가졌다.

▼ 1분기 정기회의(경남 사천시협의회)

▼ 충북지역 시·군 청년분과위원장 회의(충북지역회의)

▲ 제17기 5차 통일교육 홍보분과회의(경기 안산시협의회)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전재석)는 3일 '2017년도 1분기 정기회의'를 열었고,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5일 '제17기 5차 통일교육 홍보분과회의'를 개최했으며,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 청년위원장 동중영)는 14일 '충북지역 시·군 청년분과위원장 회의'를 열어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실무자 회의(경기 의정부시협의회)

▲ 17기 3차 전북청년위원회의(전북지역회의)

▼ 1분기 정기회의 및 제12차 통일장학금 전달식
(서울 양천구협의회)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16일 '17기 3차 전북청년위원회의'를 개최해 2017년도 주요사업을 논의했고,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점순)는 14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실무자 회의'를 열어 '통일맘 정착 수기 공모전', '10월 북한이탈주민동행주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업 계획을 세웠다.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는 27일 '1분기 정기회의 및 제12차 통일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고, **인천지역회의**(허회숙 부의장)는 9일부터 1박 2일간 '제17기 제4차 인천지역 평화통일 리더스 워크숍'을 진행했다.

▲ 제17기 제4차 인천지역 평화통일 리더스 워크숍(인천지역회의)

통일문화 확산

▲ 제17기 자문위원 워크숍(강원 철원군협의회)

▲ 공동경비구역 일원 통일안보 견학(전남 해남군협의회)

▲ 대학생과 함께하는 통일·안보·역사 탐방
(충북 충주시협의회)

강원 철원군협의회(회장 현태섭)는 3월 9일 '제17기 자문위원 워크숍'으로 용산전쟁기념관, 맥아더 장군의 인천자유공원 등 통일역사 현장견학을 다녀왔고,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명채규)는 14일부터 2일간 공동경비구역 내 판문점, JSA 안보견학관, 제3땅굴, 도라산역, 강화도 유적지 등을 견학했으며,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종호)는 10일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및 자문위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과 함께하는 통일·안보·역사 탐방'을 실시했다.

▲ 대한독립 만세운동 재현(경기 가평군협의회)

▼ 용인시민 평화누리 안보체험(경기 용인시협의회)

▼ 통일염원 걷기대회 및 환경보전 대청결운동 (경기 의왕시협의회)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3월 1일 '1919년 3월 15일 가평군 북면에서 일어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를 열었다.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필정)는 18일 '통일염원 걷기대회 및 환경보전 대청결운동'을 진행했고,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10일 시민들과 함께 공동경비구역 JSA 등 안보현장을 찾아가 통일소원 풍선 날리기, 한줄 통일생각 적기 등의 행사를 펼쳤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2017 통일현장 견학 (울산 남구협의회)

▲ 어깨동무하기 멘티-멘토(경남 진주시협의회)

▼ 탈북민 가정에 TV 등 생필품 전달(전북 전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자녀 통일장학금 전달(경남 통영시협의회)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는 11일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2017 통일현장 견학'을 개최해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견학했고,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18일 어깨동무하기 멘티 및 멘토자문 위원들과 가좌산 숲체험을 다녀왔다.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9일 관내에 새로 전입한 탈북민 가정에 TV 등 생필품을 전달했고, **경남 통영시협의회**(회장 모경책)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통일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역봉사활동

▲ 요양원 봉사활동(경기 수원시협의회)

▲ 봄맞이 효심담은 배식봉사 활동(경북 칠곡군협의회)

▲ 행복가득 사랑나눔을 위한 캄보디아 봉사활동 (울산 남구협의회)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손재필)는 5일 수원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 발마사지, 이동 및 식사 돕기, 인지치료프로그램 지원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고,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헌)는 관내 노인요양시설에서 '봄맞이 효심담은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다. **울산 남구협의회**(회장 최해상)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국제로타리 3721지구(총재 최해상)와 협업해 '2017 행복가득 사랑나눔을 위한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실시, 교육비 및 의류, 학용품, 간식, 급식을 후원하고 우물 건설에 힘을 보탰다.

▲ 요양원 봉사활동(충남 청양군협의회)

▲ 봄맞이 효심담은 배식봉사 활동(제주 제주시협의회)

▲ 대전현충원 묘역 참배 및 환경정화활동(대전 중구협의회)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18일 탈북여성들과 함께 관내 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는 4일 제주 관내 한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말벗 돼주기와 산책, 배식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대전현충원 묘역 참배 및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고,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채형)는 18일 '구민의 날 나무심기'에 동참했다.

▲ '구민의 날 나무심기' 활동(부산 서구협의회)

해외활동

▲ 경남 합천군협의회와 자매결연식(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와 **경남 합천군협의회**(회장 이점용)는 3월 17일 미국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양 협의회 자문위원과 군의회 의원, 지역우수청소년, 흥사단원 등은 결연식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결연식 후에는 프레지노 주립대의 차만재 정치학명예교수의 통일 아카데미 강연을 들었다.

◀▼ 제주시-북부유럽협의회 합동 심포지엄(북유럽협의회)

북유럽협의회(회장 최월아)와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가 3월 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북유럽협의회 간부위원, 주 프랑크푸르트 백범흠 총영사, 오윤영 영사, 장홍규 영사, 제주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대 국제정치학과 강근형 교수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반도', 백범흠 총영사의 '통일독일에 비춰본 한반도 통일의 과제'에 관한 발제를 경청한 후 토론을 펼쳤다. 북유럽협의회와 제주시협의회는 2004년 자매결연을 통해 6회에 걸친 정례회의 및 연찬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상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아름다운 이정표

'2017 탈북청소년 멘토아카데미'

처음 만난 민주평통 멘토 자문위원들과 탈북청소년 멘티들. 아직은 서로에게 조금 낯선, 하지만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것들이 가득한 밤이었다.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민주평통의 멘토아카데미가 열린 날, 결연을 맺은 멘토-멘티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냈다.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다시 남한에 오기까지 험난했던 여정을 거친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작은 징검다리가 되어줄 멘토링이 힘차게 시작됐다.

"탈북청소년 멘토링은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일"

민주평통은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2017 탈북청소년 멘토아카데미'를 실시했다.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된 한겨레중고등학교(경기도 안성 소재)에서 36명의 멘토 자문위원들과 함께한 멘토아카데미 첫째 날은 안성 하나원 견학을 시작으로 개회식, 곽종문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 강연, 멘토 자문위원과 탈북청소년의 만남, 고선아 탈북민 교사의 북한 교육 강연, 분임토의 등이 진행됐다. 둘째 날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직업교육체험과 멘토링 기법 및 사례 공유, 소감 발표 등의 시간을 가졌다.

아카데미 첫째 날에는 권태오 사무처장이 멘토링 활동을 참여한 자문위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개인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할애해 탈북청소년들을 돌보려는 자문위원들을 존경한다"며 "탈북청소년들을 멘토링해 한국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고귀한 일"이라고 말했다.

'탈북청소년의 이해와 성공적 멘토링'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 곽종문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은 한 명의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평균 3년이 걸린다며 "멘토는 배려심이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적이어야 하는 길잡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격언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탈북청소년들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너그러이 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멘티들과 기념촬영 중인 김태수,정인석 멘토위원

저녁식사를 나누고 있는 멘토위원과 멘티

멘토-멘티의 첫 만남

고선아 교사의 '북한 이해와 탈북청소년 교육' 강연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운 '멘토-멘티 첫 만남'

강연 후에는 탈북청소년들과 멘토 자문위원들의 첫 만남이 이어졌다. 짝이 된 멘토와 멘티들은 강당 뒤편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묵을 숙소를 탐방했다. 숙소를 둘러본 다음 2층 식당으로 향하던 김태수(경기 수원시), 정인석(경기 수원시) 멘토 자문위원은 멘티와의 첫 만남을 기념하고 싶다며 복도에 서서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식당에서 만난 멘토, 멘티들의 표정은 한결 더 밝았다. 음식을 함께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첫 만남의 어색함이 한결 가신 모양이다. 몇몇 멘토 자문위원들은 멘티들과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학교생활은 어떤지, 취미는 무엇인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지향 학생과 짝이 된 최정화 멘토 자문위원(대전 서구)은 "지향이가 저녁 메뉴로 나온 북한식 '인조고기밥'에 대해 조근조근 설명해주어 즐거웠다"며 마음이 잘 맞는 멘티를 만나 기쁘다며 '엄마 미소'를 지어보였다.

식사 후에는 탈북민 고선아 교사의 '북한 이해와 탈북청소년 교육'에 관한 강연이 이어졌다. 북한에서 순수과학연구 교수를 지내다 탈북한 고선아 교사는 현재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북한 교육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김정은 정권 이후 강화된 수재교육, 중고등학교 서열화, 수학·영어·과학·중국어 등의 사교육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 3분임

4분임 ▶

◀ 5분임

직업교육체험 함께하며탈북 청소년들의 꿈 응원

오후 일정을 마친 멘토들은 분임 토의 시간을 가졌다. 1분임을 맡은 신호래 교감은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했던 '해외 봉사활동 자료'들을 보여주며 "세계 각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탈북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자존감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2분임을 이끈 한복금 교사는 청년 시절 탈북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의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전했다. 한복금 교사는 무연고로 한국에 온 후 모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3분임 윤도화 교사는 탈북청소년들의 87%가 편부모 또는 무연고의 결손가정에서 자라고 있고 60%에 가까운 아이들이 제3국 체류기간 중 공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드시 아이들의 좋은 멘토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4분임을 맡은 최기태 교사는 탈북청소년들이 느끼는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위축, 한국 청소년과의 부조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관용적인 멘토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분임 전치균 교사는 "탈북청소년들은 이질적인 호칭이나 명칭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며 다양한 관계맺음과 활동을 통해 이들이 자연스럽게 남한사회에 동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날에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네일아트 등 멘토 자문위원과 멘티가 함께하는 '직업교육체험'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은별이와 짝이 된 우정임 멘토 자문위원(경기 의정부)은 은별이와 함께 달콤한 마들렌 빵을 구우며 은별이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정임 멘토는 "은별이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해 아는 탈북 공무원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주기로 했다"며 은별이의 꿈을 응원했다. 마지막 순서인 소감 및 사례 공유 시간에는 분임별 발표가 있었다. 그중 4분임을 대표해 나온 최재익 멘토 자문위원(대구 수성구)은 "지금까지 두 명의 멘티를 지도했는데, 당시는 최선을 다했어도 지나고 나면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탈북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애국심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e-행복한 통일 기자!’
희망뉴스 당선작

가상 희망 뉴스①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지구촌 최대의 눈꽃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가 극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로써 북한이 국책사업으로 건설한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과 평양의 아이스링크에서 일부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가 그간 경색돼 왔던 남북관계 개선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행사 개최가 지구촌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개최된다는 것 또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 4국을 비롯해 국제적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청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공동개최와 함께 1991년 남북 탁구 이후 27년 만의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어 다음 회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가 열린 판문점에서 NUAC 뉴스 라일구였습니다. 〈라일구〉

가상 희망 뉴스②남북 경협 확대, 남북 주민 모두 환영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개성공단 재가동이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이번 재가동은 다른 조건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다른 지역에도 남북 합동 사업을 진행한다는 합의도 함께 이뤄졌다고 알려져 더욱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개성공단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치계를 포함한 남과 북 주민들 모두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업체 조합 대표는 이번 재가동을 위해 노력한 남과 북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각종 해외 언론들도 이번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큰 기대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차가워진 남북관계 개선을 물론 그 동안 경직되어 있었던 전 세계의 대북외교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예상했습니다. 이번 '나도 e-행복한 통일 기자!' 이벤트를 통해 모인 좋은 의견들이 2017년 모두 실현되어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봄이양〉

가상 희망 뉴스③판문점서 남북통일 합의서에 서명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판문점에 나와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 자리를 함께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바로 오늘 남북통일 합의서에 양측 대표가 서명을 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관심사가 뜨겁습니다. 통일을 시행 후 이에 맞춰 남북이산가족 찾기가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민트쿠키〉

가상 희망 뉴스④북한 핵실험 전면 중단, 주민 복지에 전념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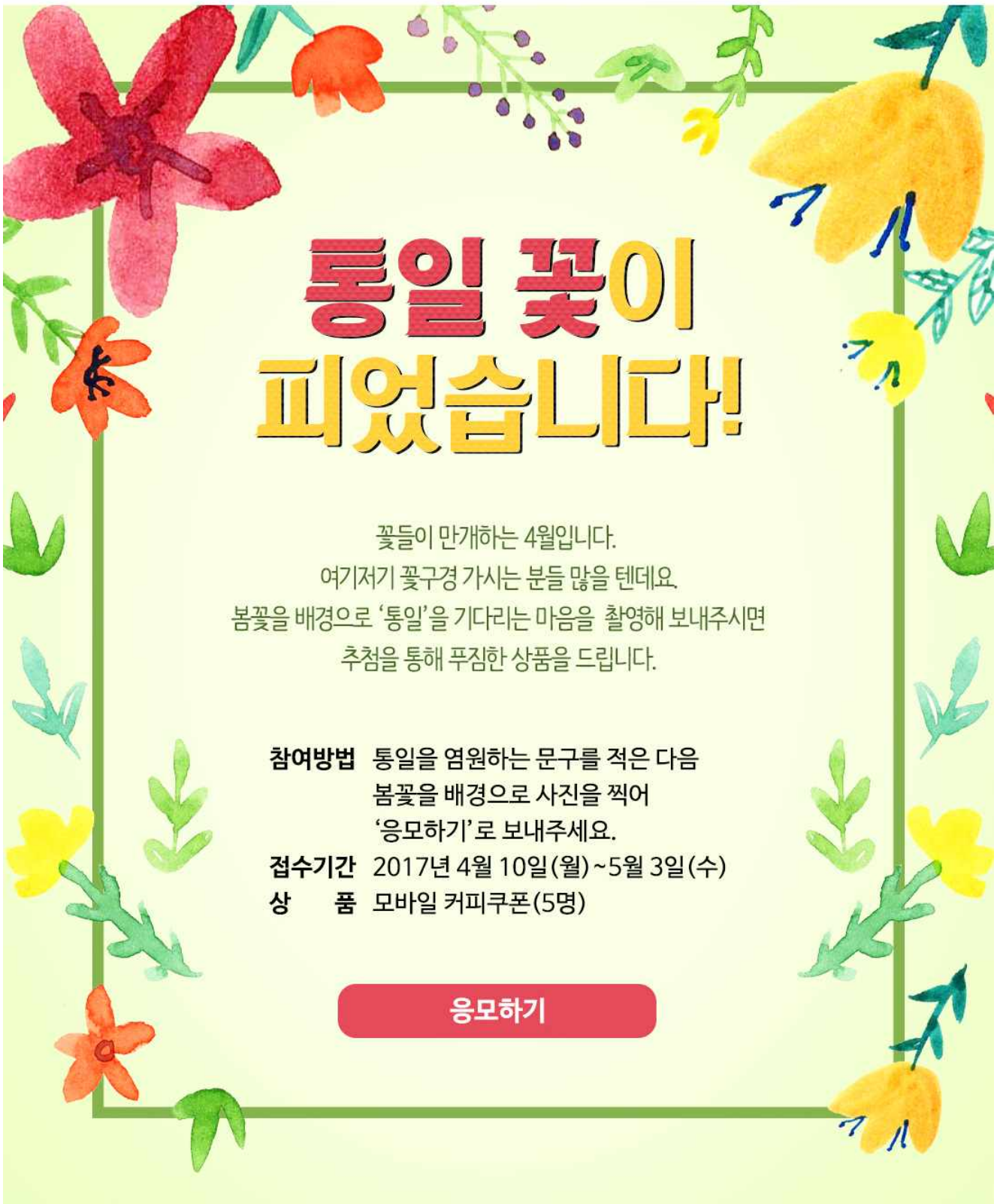
속보입니다. 북한이 드디어 핵실험을 전면 중단하고 핵실험 했던 장소를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복지는 외면한 채 무기 개발에 전념해왔던 과거를 모두 청산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에 핵 실험장은 물론 주변 모든 곳을 정리하고 농경지로 가꿔 식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남한은 물론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을 수입해 올 예정입니다. 다양한 식재료와 다양한 먹거리가 풍족해질 북한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천사타이〉

가상 희망 뉴스⑤북한 평화통일 의지 적극 피력

희망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첫 번째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 두 번째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핵 실험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에 실험 중이던 기구를 전량 폐기한다. 세 번째 안정적인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매달 23일 남북 이산가족 모임을 시행한다 등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뉴스를 마칩니다. 〈임성희〉

통일 꽃이 피었습니다!

행복한통일 웹진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통일 후 유망 직업은 뭘까?

행복한통일 웹진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e 행복한 통일 이벤트 당선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 출석표를 찍어주세요!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두리뭉쉴	**ove1025@naver.com
마미굿	**tro@naver.com
서인애	**ue0350@naver.com
세상바라기	**flays@naver.com
이성균	**khero@naver.com
휘영청보름달	**soyoung79@hanmail.net
통일아저씨	**24705@naver.com
간다	**pe@naver.com
하향	**j34d@naver.com
경이	**ndengnd@hanmail.net

나도 'e-행복한 통일' 기자!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라일구	**u1975@naver.com
봄이양	**oalexiel80@gmail.com

민트쿠키	**teto1030@hanmail.net
하늘천사타이	**tio@naver.com
임성희	**dgmlyim@naver.com

웹진 만족도 조사 이벤트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010-**24-8708	010-**96-9981
010-**50-2731	010-**82-0173
010-**18-4922	010-**88-6203
010-**28-5384	010-**10-6154
010-**64-6372	010-**63-7788
010-**50-4437	010-**01-8710
010-**71-5104	010-**96-1833
010-**09-5337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